

우리들의 야유회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얼마전 마을 입구에 플래카드(현수막)가 걸렸다. 현수막은 당일치기 마을 야유회 안내문구. 마침 마을회관 앞 노인들이 흠뻑 젖어있던 “이번엔 어디로 가느냐”며 술렁였다. 지난 3년간 마을에서는 변변한 행사 한번을 못 치렀다. 특히 여행은 꿈도 못 꿰다. 이제 코로나에서 해방된 감정으로 마을사람 모두 여행을 떠날 수 있다니 반가울 수밖에. 도시민들에게야 그저 소소해서 별다른 게 있겠냐 싶지만 여기서 큰 행사다.

올해는 봄이 일찍 왔다. 이전보다 열흘은 빨리 온 것 같다. 그래서 4월 초순께 모종을 내고 모내기 준비를 하는 등 분주했던 집도 많다. 이런 여행은 농번기전 막간에 즐기는 망중환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의미가 남다르다. 아주 오랜만에 지친 심신을 달랠다고나 할까.

마을에서는 연말 전체 회의가 있고 연초에 척사대회를 열고 웃놀이 등을 즐긴다. 그리고 5월 초 마을 전체가 농번기 직전

여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름 한철 삼복 더위에 마을 사람이 모여 다같이 밥을 먹는 날 등 대체로 네번 정도 정기적인 모임과 한두차례 긴급한 회의가 열린다.

노인들의 기쁨이 유독 커보였다. 필자는 26년 전 마을로 이사온 후 3년째가 돼서야 마을 여행에 처음 합류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작은 녀석은 잘 걷다가도 이따금씩 산길을 걷거나 해변을 산책할 때는 안아달라고 보냈던 기억이 난다. 오전 8시 출발해서 오후 10시쯤 귀가, 젊은 나에게 힘든 하루였다. 그렇더라도 하루쯤 놀이에 빠진 이들에게 그날의 즐거움을 무엇과 바꾸랴.

“여름 꽃구경 한번 제대로 못 했잖아. 여행간다니게 아들, 딸들이 용돈도 보내고.” 도시로 나가 사는 자식들에게도 부모님의 야유회가 반가울 터. 노인들의 웃음소리는 마을회관이며, 노인정 뿐만 아니라 동네 곳곳에 가득한 봄날이다.

마을 여행 경비의 마을 지원금을 활용한다. 우리 마을은 송전철탑이 지나기 때문에 각 가구당, 마을당 전기 송출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 일정한 정도의 지원금을 또 받는다. 그 지원금은 마을사업과 정비 등에 쓴

다. 그래서 이장과 총무는 ‘마을기업이 모범적인 곳’에서 견학을 겸하고 싶어 골머리를 싸맬 지경이다.

예전에 마을기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꽤 높은 수익을 내면서도 귀촌이 늘어나고 있는 곳을 가본적이 있다. 다행히 용대리 황태마을이다. 마을에서는 용대리~백담사간을 운행하는 버스회사, 황태가공공장식당, 펜션 등 여러개의 마을기업을 성공시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있었다.

수익 분배를 보면 입을 딱 벌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수익으로 마을 도서관과 공부방을 운영하고 장학금을 준다. 또 일부는 명절날 선물세트와 수익금을 배분, 수십만원씩 나눠주는가 하면 100여개의 일자리도 창출해 모범적인 마을기업 사례를 보여줬다.

우리 마을에서도 노는 땅을 이용해 주말농장, 창고대여, 고구마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좀더 확실한 수익모델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중이다. 그래서 아마도 야유회 주제가 ‘모범적인 마을기업 탐방하기’로 정한 듯 하다. 모처럼 떠나는 당일치기 산책이 또 한해를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걸 여기서 새삼 알게 된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3일 (금 3월 14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일러놓은 만큼 성과도 좋다. 48년생 주식이 오른 만큼 빼내도록. 60년생 배장은 크게 갖되 주의는 세심하게 갖도록. 72년생 급여가 적어도 보람으로 미래를 발전시켜라. 84년생 세상의 어려움을 겪으니 행운이 기다린다.
- 소** 37년생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불편을 가져올 터. 49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꼴을 얻을 수 없다. 61년생 학교 선배가 나를 돕는다. 73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어디로 갈지 갈 곳을 모른다. 85년생 진귀한 음식을 대접받는 날.
- 호랑이** 38년생 양손의 떡 중 하나는 양보해야. 50년생 젊은 후배를 상갓집에서 만난다. 62년생 능력이 없으면서 기대는 너무 크니 실망도 따르다. 74년생 다정했던 동료와 불화를 조심하자. 86년생 병법상의 최상책이 삼십육계라는데.
- 토끼** 39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무난히 해결. 51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인다. 63년생 기회가 오니 판단력도 필요. 75년생 이직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87년생 세 사람이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스승으로 배울만한 사람이 있다.
- 말** 40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어머니 사랑. 52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 64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왔으니 도전. 76년생 만나던 연인이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88년생 비를 맞은 개처럼 공상맞다.
- 뱀** 41년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53년생 행한 적선이 복으로 돌아오다. 65년생 나의 특기를 따라올 자가 없으니 더 노력. 77년생 실속은 없으나 내일을 위해 축적. 89년생 부모님이 그리워도 될 수가 없으니 산소라도 찾자.
- 말** 42년생 글을 읽음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했다. 54년생 민거나 말거나 남의 뒷 얘기 하지 않도록. 66년생 부조화는 불안정을 부른다. 78년생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 90년생 밖으로 나가보니 세상이 너무도 변해간단다.
- 양** 43년생 아직 시간은 있으니 독신보다는 가정을 이루도록. 55년생 표리부동은 결국에 내 흉도 드러난다. 67년생 발로 뛰는 일을 찾아보자. 79년생 명상으로 돌아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91년생 뒷물이 흐르면 아랫물도 흐르진다.
- 원숭이** 44년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마라. 56년생 바람이 불어도 기본은 흔들리지 말자. 68년생 내 손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법. 80년생 남쪽으로 길을 떠나보면 생각도 변한다. 92년생 어려운 일이 임시변통으로 우선은 해결.
- 닭** 45년생 내 생각은 그림처럼 아름다우나. 57년생 재한할 때가 아니라 시간을 가져보자. 69년생 이제에 관한 생각을 바꿔보면 길이 보인다. 81년생 오늘 걸으면 내일 뛰지 않는다. 93년생 모아 둔 돈은 없으나 산 입에 거미줄 차라.
- 개** 46년생 세상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으니 근심 말자. 58년생 가물에 단비가 내린다. 70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갈등 시작. 82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94년생 달걀을 쌓은 것처럼 시기가 위태로우니 투자는 금물.
- 돼지** 47년생 사촌의 자식 고뇌를 보며 무자식 상팔자를 실감. 59년생 명예는 나를 지켜주는 힘. 71년생 배우자를 의심하지 말자. 83년생 혁신적인 생각이 모두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다. 95년생 죽은 후에는 좋은 약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대전 ‘친환경 골프장’ 조성, 지역민과 협의해야



**기지수첩
원승일**
(전국본부)

덴마크 코펜하겐은 쓰레기 매립장에 열병합발전소를 지어 관광명소이자 지역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 중이다.

스웨덴 말뚝은 쓰레기 매립장에 친환경 공원을 조성해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모두 님비(NIMBY), 즉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을 내 구역에 짓지 말라는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 친환경 시설로 관광 명소가 된 해외 사례들이다.

대전시가 유성구 금곡동 환경시설 밀집 지역에 대규모 친환경 골프장 조성 사업 계획을 밝혀 논란이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이어 앞으로 제2매립장과 하수처리장 이전도 앞두고 있어

지역민들의 재산권 불이익, 생활환경 개선 목소리가 크다. 이곳에 대전시는 오는 2027년까지 1500억을 들여 최대 27홀 규모 공공형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은 대전시 공공기관이 운영해 시민들이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쓰레기 매립지였던 상암동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사례처럼 대전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친환경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가 공청회 등 지역 주민들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 계획부터 발표한 점도 문제다. 정책도, 시책도 추진 전에 공청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그럼에도,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민들이 반대해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친환경 골프장이라고 홍보한

다. 하지만, 골프장 특성상 다량의 농약 사용이 불가피하고, 녹지가 줄어드는 동시에 잔디 관리를 위해 계속 물을 뿌려야 한다. 친환경 골프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골프장 부지가 쓰레기 매립장 등 각종 환경처리시설에 조성되는 만큼 향후 악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단지, 골프장이라서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골프 인구가 늘고 있고, 대중화된 공공 골프장도 필요하다. 다만, 코펜하겐, 말뚝처럼 골프장 외 열병합발전소, 생태공원 등의 대체제로 명소가 된 사례가 있다. 이장우 시장이 이미 답을 갖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이들 사례에 눈을 돌려 벤치마킹 해 볼만 하다. 친환경 골프장이든, 친환경 공원이든 결국 대전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에, 사업 추진 전 지역민들과 충분한 협의는 필요해 보인다. /won@



김상회의 四季 소나무 예찬

소나무 말이 나오다 보니 봄철 화재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소나무에 대해 깊은 애정이 깎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필자의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명절음식으로 소나무 꽃가루를 버무려 만든 다식은 맛도 같지만 기운을 보호해 주는 약성을 지니고 있어 간식거리가 다양치 않았던 때 매우 귀한 다과였다. 솔잎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송편이 있게 만든 일등공신이고 역시 약재로도 훌륭하여 선조들의 자랑거리 전통약재서인 ‘본초강목’에도 그 응용법이 자세히 나온다.

소나무의 각 부분은 식자재인 동시에 약재로서도 그 효과가 겹칠하여 솔잎을 가늘게 썬 뒤 갈아서 날마다 밥 먹기 전에 술과 함께 먹거나 끓인 물로 죽을 만들어 먹으면 이보다 더 훌륭한 건강식이 없다. 술을 만드는 데도 최상의 재료이기도 하여 소나무 옹이나 앞의 재료에 따라 송순주(松筍酒)·송엽주(松葉酒) 또는 송하주(松下酒)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송하주는 동짓날 밤에 솔뿌리를 넣고 빚는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만든 술을 소나무 밑을 파고 향아리를 잘 봉하여 두었다가 이듬해 낙엽이 질 무렵에 먹는 술이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신선들이나 즐겨 마실 수 있는 정도의 고품격 술이 아닐 수 없다. 송진은 다방면에 약효가 있어 한약재의 단골소재이며 송진이 땅 속으로 들어가 천년이 지나면 호박으로 변한다고 한다. 호박은 고가의 보석으로 결혼하는 새색시의 귀한예단품중 하나이기도 했다.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을 송연(松煙)이라 해서 이는 좋은 먹을 만드는 재료라 한다. 뭐 하나 버릴 데가 없다. 무엇보다 소나무는 짐장생의 하나로서 품격 높은 동양화에 반드시 보이며 고고하고 향기로운 절개 높은 기상을 표상한다. 소나무를 존경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을 늘려라**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쫓아주세요!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8	9	6
6	1			5	4
5	7	4		2	
2					9
		8		6	7
	3	7			9
	2	9	6		

		2	4			3	
8				6		9	
	7					2	
		4			5		8
5							
1							4
			7		3		1
	8				7	2	

정답

4	7	2	1	8	9	6	8	9
8	9	5	7	9	6	2	1	7
1	9	6	8	2	7	8	4	9
9	2	7	9	1	8	7	6	8
7	6	8	7	9	8	9	2	1
9	1	8	2	6	7	7	7	8
8	8	7	9	7	7	1	9	6
2	7	9	6	8	1	9	8	7
6	9	1	8	7	9	8	7	2

8	9	2	7	1	9	8	6
1	6	8	9	8	9	7	7
9	7	7	6	2	8	8	9
7	2	7	8	1	9	6	8
6	8	9	8	9	7	1	7
9	1	8	7	6	2	8	9
2	9	1	9	8	6	7	7
7	7	6	2	9	8	9	1
8	8	9	1	7	7	2	6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8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8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